

韓銀 발표 2007 2분기 자금순환 동향

국민 1인당 빚 1,447만원

올해 6월말 현재 개인부분의 금융부채 총액이 700조원에 달했다.

개인의 부채도 크게 늘었지만 2·4분기에 증가상승의 영향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과 해외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자산운용도 급증, 2분기중 개인부분의 금융자산이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2·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개인부분의 부채 잔액은 총 699조1천억원으로 3월말에 비해 2.7% 증가했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말 추계인구(4천829만7천184명)로 나뉘면 1인당

개인부분 금융 부채 700조... 1분기보다 2.7% ↑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 금융 자산도 100조 ↑

인당 빚은 1천447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개인부분의 금융부채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동산 시장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최근 개인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둔화된 편이다.

이에 비해 개인부분의 금융자산 잔액은 6월말 현재 1천632조5천억원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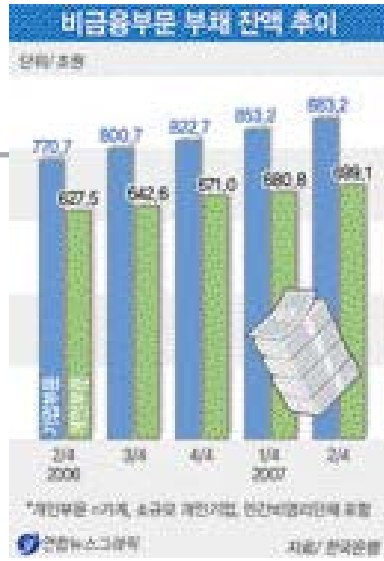
로 3월말에 비해 6.8% 증가했으며 액수로는 무려 103조5천억원이나 급증, 분기 증가액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개인금융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주식시장 활황이 맞물리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주식과 해외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으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금융자

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2.34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개인의 자금운용 규모에서 자금조달 규모를 뺀 자금잉여 규모는 18조9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98년 3분기 19조2천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지 않는 가운데 여유자금을 주식과 펀드 등에 주로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의 자금운용액 가운데 2분기의 수익증권 운용규모는 10조6천억원으로 1분기의 2조6천억원에 비해 4배 정도도 급증했다. 기업의 경우 환율하락과 유가상승



으로 수익성은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면서 2분기 자금조달규모가 53조9천억원으로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운용액을 뺀 부족액은 32조8천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수익성 하락으로 내부조달 자금여유가 축소된 가운데 설비투자를 위해 외부자금을 대거 조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통합 신한카드 내달 1일 출범

이용액 45조...세계 10위권 카드사 부상

LG카드와 신한카드가 10월1일 통합돼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대, 세계 10위의 신용카드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합 신한카드의 출범은 은행계와 기업계로 양분된 한국 신용카드 시장 구도를 은행계 위주로 급속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G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성공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통합 신한카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실질회원수 1천310만명, 카드 이용액 45조원으로 시장점유율 2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신한카드는 LG카드가 쌓아온 국내 1위, 아시아 최대 카드사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는 한편 사용자 기준으로 세계 10위로 올라선다. 국

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10위 안에 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카드는 업계 절대 강자라는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매머드급 카드사의 출범으로 국내 카드업계는 은행계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1위인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이 25%, 2위인 KB카드가 17%로 1, 2위가 모두 은행계가 된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전국적인 유통채널과 브랜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차판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카드사의 출범으로 신한지주도 총자산 228조원, 순이익 3조원에 임직원 2만3천여명을 거느린 국내 최대의 금융그룹으로 부상하게 된다.

소비심리 '꿈틀'...체감지수 4분기째 상승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소비자 체감경기 지수가 4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 체감경기 지수는 과거 시계열 분석에서 1~2분기 정도 경기 흐름에 선형하는 추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향후 경기의 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12로 전분기보다 4포인트 올라갔다.

3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신용카드 남

발로 인한 소비 거품이 극심했던 2002년 3분기의 119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이달 3~14일 전국 30개 도시 2천44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996년 2분기부터 2005년 1분기중의 시계열자료를 활용해 현재 생활환경,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주요 구성지수를 합해 도출한다.

이 지수는 작년 3분기 96에서 4분기 98로 상승한 후 올해 1분기 103, 2분기 108, 3분기 112 등으로 4분기 연속 상승했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물 위를 날으는 위그선' 실용화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날으는 배 '위그선' 상용화 가속도

시속 300km 민간 수송용 세계 최대... 2012년 양산

오는 2012년이면 최고 시속 300km로 물 위를 나는 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과학기술부는 2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 현황'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위그선은 길이 77m·폭 65m에 총중량만 300t에 달하는 등 민간 수송용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속도는 시속 250~300km로 운항할 수 있으며 적재량은 100t, 보잉 747기 수준이다.

대형 위그선 사업은 선박에 비해 운항속도가 빠르고 항공기보다 저렴한 신개념 수송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특히 지난 7월 대우조선해



양선이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는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면서 향후 과학기술사모투자펀드(한화기술금융)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올 10월 실용화기업을 설립,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1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2년 양산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위그선 건조 및 운항 관련 법·제도 정비와 위그선 점안시설 마련 등 운항 인프라도 구축해나갈 계획을 세워놓았다.

정부는 대형 위그선이 개발되면

▲위그선 = WIG는 영어 'Wing In Ground'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양력(揚力)이 급증하는 해면효과를 이용해 해수면 가까이 떠서 달리는 비행체, 즉 날아다니는 배를 뜻한다. 수면 위 5m 이내에서 뜬 상태로 최고시속 5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초고속선이다.

2012년 이후 연간 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5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현황'을 비롯, 국가 R&D사업 연구성과 관리 활용 활성화 방안 등 4개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건보·연금공단 개인정보 유출 심각

호기심 등으로 무단 열람 사생활·인권침해 이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도덕적 일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2년 6명,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2007년 1명 등을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유로 징계했다.

또 연금공단도 작년 1~2월 두달간의 내부 감사결과, 493명의 직원이 호기심 등 개인목적용 정처리나 연예인, 직원 상호 간의 개인정보 972건을 무단 열람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작년 10월 중순 이기우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 9명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간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목적이나 친구 부탁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 제발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윤의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코스피 2000 재돌파 기대

글로벌 증시 안정세 힘입어 1945P 마감

코스피지수가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돼 향후 주가 상승 기대감을 높였다.

27일 코스피지수는 연휴 전날(21일)보다 26.02포인트(1.36%) 오른 1945.28로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7조원을 넘어선 7조417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792.13로 장을 마치며 추석 연휴 직전보다 0.47%(3.72p)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날 상승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6개월만에 이평평균선이 정배열돼 대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3·4분기 기업들의 실적 여부가 향후 국내증시 추가 상승 여부를 진단하는 주요 변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성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계절적으로 10월은 기업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국내기업의 3·4분기 및 하반기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완만하게 오버랩 되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올 100억 주식갑부 21명 탄생

올해도 증시 신규상장으로 '대박'을 터뜨린 평가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갑부가 21명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된 39개 기업의 개인 최대주주 가운데 오스 템임플란트의 최규옥 대표의 21일 종가 기준 보유주식 평가액이 1천131억원으로 유일하게 1천억원대 주식부자가 됐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1호인 3노드디지탈의 리우쑤 대표의 평가액은 697억원이다. 3노드디지탈은 주가가 한때 공모가(2천500원)의 5배로 치솟아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되기도 하며 2위 자리에 올랐다.

디지털시스템 이환용 대표가 62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5월 1주일 간격으로 증시에 첫 발을 디딘 케이프의 김준호 대표와 한라레벨의 지석준 대표가 각각 542억원, 350억원의 평가액을 기록했고, 6월초 거래를 시작한 인포피아의 배병우 대표가 323억원으로 300억원대 주식부자 반열에 올랐다.

200억원대는 동국제약 권기범 대표(286억원)와 잘만테크 이영필 대표(227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넥스트김 김경수 대표(197억원), 에버테크노 정백은 대표(144억원)등 13명이 100억원대 그룹에 포함됐다. 연이정보통신 이용호 대표(167억원)는 공모가에 비해 주가는 하락했지만 상장 사흘만에 100억원대 주식 자산가 클럽에 가입했고, 유령 여성벤처인 박지영 컴투스 대표의 남편이기도 한 이영일 컴투스 이사(155억원)도 보유주식 평가액만 100억원이 넘었다.

“내년 경제 5.1% 성장”

현대경제연구 “하반기엔 하강국면”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가 5.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초까지는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돼 연중 상고하저형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27일 '2008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며 두바이유가 연평균 80달러대 내외, 원·달러 환율이 915원 내외가 된다고 전제할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5.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내년 초까지는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는 하강국면으로 전환가능성이 높아 연중 상고하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에 의한 고용상황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 확대로 4.5% 늘어나 올해보다 다소 높아지겠지만, 금리상승에 의한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저하로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회복기조가 다소 강화돼 8.5%를 기록하겠지만 내년 초반 정권교체와 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현상이 나타날 경우 민간 경제심리 악화로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건설투자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 공공투자 확대로 3.8% 늘어 올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겠지만, 회복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여성 고용률 남성 육박

2분기 1%P차로 좁혀...곧 추월 가능성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같은 나이대 남성 고용률에 근소한 차이로 육박하고 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4.9%이던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 2004년 59.2%, 2006년 59.4% 등 매년 상승해더니 올해 들어서 1·4분기 59.3%, 2·4분기 59.7%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20대 남성고용률은 2000년에 66.0%이던 것이 2002년 65.2%, 2004년 63.2%, 2006년 61.2% 등으로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서 1·4분기 60.5%, 2·4분기 60.7%를 나타냈다. 이 나이에 남녀 고용률 차이는 2000년에 11.1%포인트였으나 2002년에는 7.3%포인트, 2004년 4.0%포인트, 2006년 1.8% 포인트로 현격히 줄더니 올해는 1·4분기에 1.2%포인트, 2·4분기에 1.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올해 남녀고용률 차이를 월별로 보면 5월과 6월에 각각 0.6%포인트에 불과했다. 이 추세를 같 경우 월별 고용률은 1~2년내에, 연간 고용률로는 수년내에 여성이 남성을 앞지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전연령대의 고용률은 지난 2000년에 남성이 70.7%, 여성이 47.0%로 격차는 23.7%였으며 지난해의 경우 남성이 71.3%, 여성이 48.8%로 격차는 22.5%를 나타냈다.

이처럼 여성고용률이 남성을 위협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20대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결혼보다는 취업으로 상당부분 옮겨오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다 정부나 기업이 내인력재용시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면서 여성에 대한 문호를 넓혔기 때문이다.

